

얼비투스, 유럽에서 대장암 치료제 사용승인

한국Merck는 KRAS 정상형 종양을 가진 표피성장인자수용체(EGFR) 발현 모든 전이성 대장암환자의 치료에 항암화학요법과 함께 얼비투스 (cetuximab)를 병용하거나 Oxaliplatin 및 Irinotecan 기반 항암화학요법에 실패하고 Irinotecan을 견디기 힘든 환자에서 단독요법으로 사용하는 적응증 확대 신청에 대해 유럽위원회 (European Commission)의 승인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Merck 세로노 항암제사업부의 볼프강 바인 수석부사장은 “환자 종양의 KRAS 상태에 따라 얼비투스의 효과를 예측할 수 있으므로, 얼비투스는 전체 전이성 대장암 환자의 3분의 2에서 새로운 주요 치료 옵션”이라며 “맞춤형 치료요법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밝혔다.

대장암 환자의 65%는 돌연변이가 없는 정상형 KRAS 종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RAS는 EGFR 경로에 관여하는 단백질을 코드화하는 유전자로서, 정상형 KRAS 종양은 KRAS 단백질이 엄격하게 규제되며 EGFR 신호와 같은 특정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만 활성화된다.

정상형 KRAS 종양을 가진 환자에서는 얼비투스가 신호전달 경로를 차단해 종양 성장을 예방하는 반면, KRAS 돌연변이는 얼비투스의 효과를 막아 종양이 계속해서 성장, 증식, 확산하게 된다.

한국에서는 매년 1만5000명 이상에서 대장암이 발병하고 있으며, 전체 암의 12%를 차지하고 매년 50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다

대장암 환자의 약 25%는 전이성 질환을 보이며, 전이성 대장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5%에 불과하다.

<화학저널 2008/07/28>